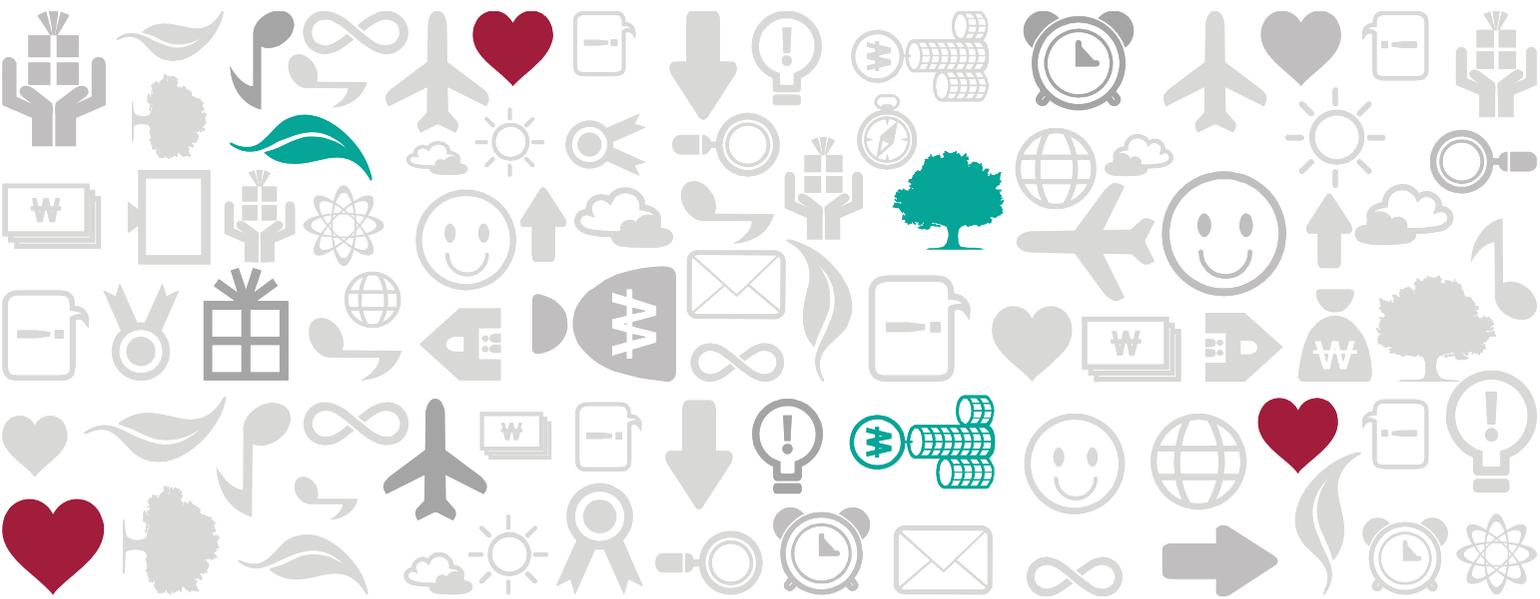


은퇴설계를 위한

하나 행복가이드

국내외 노인여가 서비스 및 시사점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분석과 함의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3709 - 7252



Contents

이슈 포커스	국내의 노인여가 서비스 및 시사점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분석과 함의	1
경제 트렌드	글로벌경제를 좌우하는 미국의 경제와 정책 방향 금통위 의사록 공개후 추가 금리인하 기대 약화 환율은 주요국 경기회복 및 통화정책 차별화에 주목 주식시장은 변동성 높은 박스권 횡보 흐름이 지속될 전망	9
노후 재무 설계	제조사 재직 L씨, 과도한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 필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전략이 유효 투자상품은 안정성을 중시하며 원금보존을 추구하도록 구성	17
국내외 단신	2013년 401(k) Plan의 서비스,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분석 고령층의 경제활동에 관한 부가조사 결과 발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실시	20
상품브리프	2013년 새롭게 변경된 연금저축계좌	24
부동산 따라잡기	9.1 후속조치 발표로 재건축 투자확대 기대감	26
행복한 노후디자인	가을의 정취를 찾아 떠나보자	28
하나뉴스	하나은행-하나SK카드, 추석맞이 체크카드 이벤트 실시 등	30
연금통계		31



국내외 노인여가 서비스 및 시사점



수석연구원 백 중 호
(jongho.baek@hanafn.com)

“최근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국내 노년층의 여가활동은 여가복지시설의 한계로 TV시청 등 소극적인 데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노인들에게 교육, 자치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국내 노인 여가 활동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노인 자치 단체 활동 활성화, 정보 접근성 향상 등으로 노인들이 보다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의 지원은 물론 노인 스스로도 여가시간을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아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의 학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력과 고학력을 가진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노인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늘어나고 각종 단체나 기관, 방송매체 등에서도 노년기 여가 프로그램을 보급·확대하고 있어 여가활동에 대한 양적·질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체활동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노후의 여가생활은 노인들이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에서 벗어나 자긍심과 자신감,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결국 신체 및 정신 건강, 삶의 만족감, 심리적 안녕 등과 연계된다. 더 나아가서는 심신이 건강한 노인들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립됨에 따라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여가활동은 노인문제의 예방 및 치료적 차원에서 노인복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노인 여가활동의 개발은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유용한 노인 문화를 창출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에 노년기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개인적인 삶의 질 문제 외에도, 의미있는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은 21세기 사회적인 과제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국내노인들의 여가활동 현황을 조사해 보고 국내외 여가서비스 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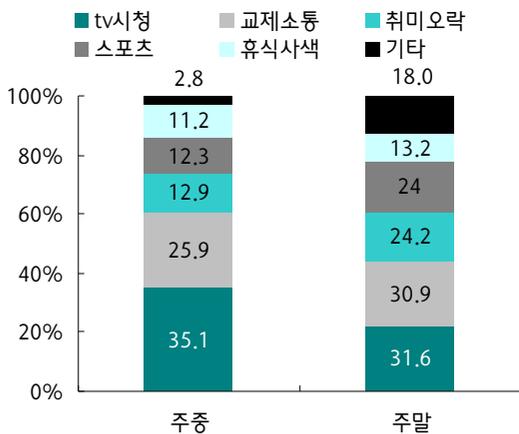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노인 여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전반적으로 소극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적극적 여가활동을 실천하지 못하고, TV시청이나 교류 및 소통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 평생교육이나 자원봉사 등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낮고, 또한 향후 이용 희망률도 높지 않은 것이 과거 20년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가진 전국 5,000여 가구와 그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여명을 추출하여 격년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KReIS)를 실시하여 왔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1년에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주중과 주말 모두 TV 시청, 라디오 청취 등 미디어 매체 활용과 같은 수동적 형태의 휴식활동을 취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봉사 및 단체활동 등 사회참여와 문화예술관람 및 창조적 활동의 비중은 저조하였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 지역을 막론하고 시·공간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여가프로그램이 노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오락과 게임 위주일뿐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까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취미나 교육활동에서는 서예, 바둑, 장기 등 정적인 활동에 대한 비중이 높다. 그에 반하여 외국의 노인들은 대체로 적극적인 취미오락활동, 지역사회활동 참가, 운동경기 및 문화예술활동 관람 등 보다 동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 노인 여가활동 현황



|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일례로 미국의 경우 노인들과 청소년 혹은 유아들과의 연계프로그램이 있어 노인들이 지도자,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 사례까지 있다.

국내 노인 여가시설은 교류 및 오락에 치중

우리나라의 노인여가서비스는 정부 및 단체, 사회교육원, 노인교실 혹은 노인학교 등의 지원을 받는 공공영역과 대한노인회, 노인복지회관, 종교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민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에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로당 외에 노인교실과 노인복지회관, 노인휴양소가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교제 및 소통의 비중의 크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치중한 경로당이 전체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노인들이 학습이나 봉사활동 보다는 교류 및 오락활동에 보다 관심이 있기 때문이나, 경로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상황은 다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노인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노인 여가복지시설

	비고
노인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경로당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장소를 제공
노인 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
노인 휴양소	노인들에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

| 자료 : 보건복지부

이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의 프로그램의 방향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우선 가능하다. 노인 여가 활동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학습하고 봉사하면서 의미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는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해외 노인 여가 활동은 국내 대비 활동적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며, 시설이나 프로그램 면에서도 우리나라에 비하여 많이 앞서있는 상황이다.

우선 미국의 노인여가 서비스는 활동적 여가활동이 특징으로, 국가적·민간적 차원에서 노인여가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다.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내 노인 여가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는 '다목적 노인센터(multipurpose center)'가 있다. 노인센터는 노인들에게 교육, 의료, 주택, 고용, 재정지원과 상담, 법률, 교통, 주간보호센터 등의 프로그램 외에 음악, 연극 등의 문화 예술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유명한 것으로는 노인들의 자치단체인 전미은퇴자협회(AARP)에서 지역연계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회원 대상 맞춤형 서비스 및 자원봉사 활동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대학 시설을 이용하여 노인들에게 성인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고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엘더호스텔(Elder hostel)은 노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방학기간동안 대학 캠퍼스에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명한 민간 프로그램이다. 일본의 경우, 1990년에 이미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체제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교육, 문화, 스포츠, 자원봉사 등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노년층의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첫째, 일본에서는 각 구단위로 취업을 도와주는 인재센터와 고령자능력개발정보센터가 있다. 인재센터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령자능력개발정보센터는 노인의 적성검사, 직업 관련 조사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에 힘입어 일본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반 이상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총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도 20%를 넘어서고 있다.

둘째, 일본노인들은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노인 뉴 스포츠 육성 보급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노인들간 교류확대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도 제공한다.

셋째, 노인 여가활동을 위하여 민간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노인클럽이 활성화되어 있다. 노인클럽은 지역별로 다양한 자주활동을 기반으로 스포츠 활동과 각종 레크레이션 등 회원의 즐거움과 삶의 보람을 위한 활동, 환경미화를 실시하는 사회봉사의 날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인 여가활동은 평생교육이다. 대도시에는 제 3세대 대학, 읍면 단위에는 노인여가 대학이 대표적인 노인 고등교육 서비스로서,

선진국의 노인 여가 서비스 비교

	특징	주요 서비스
미국	공공, 민간의 조화, 활동적 활동	노인센터, AARP맞춤형 여가 서비스, 자원봉사
일본	노인들의 취업에 중점	인재센터, 고령자능력개발정보센터, 노인클럽
프랑스	고등 평생학습	제3세대 대학, 노인여가 대학

| 자료 : 최훈남, "노인여가의 역할과 노인여가서비스", 2005 |

이들 대학은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교수 방법, 노인들의 개인 개발 기회 제공 등의 취지 하에 1973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노인들은 이러한 시설에서 영어, 역사, 고고학 학습, 미술, 컴퓨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자의 흥미에 맞게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제 3세대 대학은 현재 약 18개국에 걸쳐 교환 프로그램까지 활성화되어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노인 여가활동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

노년기 여가활동을 얼마나 보람있고 유용하게 보내느냐는 노후의 고독감 및 고립감을 해소시키고 남은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이다. '노는 것도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유익한 여가활동은 학습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노인여가 서비스는 노인들에게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개발 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다소 열악할뿐더러 세부적으로 다양하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더욱 큰 문제점은 노인들 스스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이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노인 여가의 교육 부문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노인교실 혹은 노인대학은 대부분 종교기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내용이 종교인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엘더호스텔, 프랑스의 3세대 대학처럼 대학 등에서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여야 한다.

둘째, 일본의 노인클럽처럼 다양한 자치단체 활동을 기반으로 노인들이 스스로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찾는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복지관 등에서, 자치적으로 모임이나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셋째, 노년층의 여가활동 참여 제고를 위해서는 여가활동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접근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노인에게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정보접근 및 정보 활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현 세대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청장년시절을 보내면서 노동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으며, 여가는 상류계층만이 즐길 수 있는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층에 상관없이 노년층에게 여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노인 스스로가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여가시간을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노인 여가 활동 개선방안

여가활용에 대한 인식 미흡

- 여가를 상류계층이 즐기는 특권으로 인식

여가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오락 중심으로 단순하고 비체계적

여가 서비스 정보 접근성

- 시설이 확대됨에도 홍보 미흡으로 이용률이 여전히 미미

노인 여가활동 개선방안

- 노인 여가의 교육적 측면에 대한 강화
- 경로당 외에 노인 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 원스톱으로 다양한 콘텐츠 정보 제공
- 여가활동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인식 전환

|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분석과 함의 ”

연구위원 김 대 익
(kimdi@hanafn.com)

“정책당국은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사적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내 사적연금은 낮은 가입률, 보수적 운용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 낮은 연금화 등으로 인하여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가입 의무화 추진, 위험자산의 편입비율 완화 및 기금형 제도의 도입, 연금수령시 세부담 경감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안이 내실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대응방안 및 전략의 마련도 요구된다.”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소득대체율 제고 등을 위한 대책 발표

현 재 국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노후 준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짧은 연금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제적인 권고치 70~80%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50% 수준 정도이다. 특히 사적연금은 20%수준으로 국제적인 권고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그 결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정책당국이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세부 계획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세부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관련 시장 및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내 사적연금은 낮은 가입률, 지나친 보수적 운용, 낮은 유지율 등이 문제

국내 사적연금인 퇴직연금(05년 도입)과 개인연금(94년 도입)은 시행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기대한 것 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사적연금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우선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도입률은 15.6% 이고, 상용근로자 대비 가입자는 50.7%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록 가입률은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평균 30%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계층인 소득 1분위의 가입률은 10% 수준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두 번째로는 지나친 보수적 운용에 따른 낮은 수익률과 상품의 다양성 미흡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의 비중이 금액 및 가입자 기준으로 각각 69.1%, 60.7%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자산의 운용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기준으로 각각 98.1%, 79.2%로 대부분의 자산이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보수적 운용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자산의 운용 수익률도 2.5%내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의 경우는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의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로는 중도해지 및 일시금 수령 등으로 인하여 노후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55세 이상 퇴직자 대부분이 일시금 형태의 수령으로 인해 연금수령자의 비중이 2014년 6월 기준으로 2.9% 수준에 불과하다. 금액으로는 더욱 낮아 0.8% 수준이다. 개인연금도 상황은 비슷하여 1년차 가입 유지율이 95.5%이던 것이 5년차에는 72.4%로 낮아지고, 10년차에는 52.4%까지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사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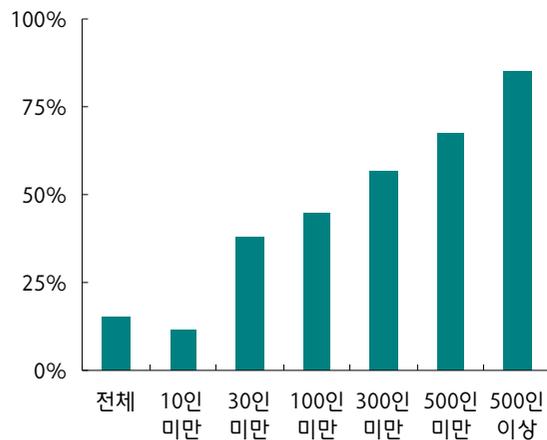
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사적연금이 노후 안정적인 생활 수단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자 정책 당국은 이들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적연금 활성화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의 단계적 가입 의무화 방안 제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크게 가입자 확대,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연금화 유도 및 수급권 보호, 인프라 구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가입자 확대 측면에서는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퇴직연금의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한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하여 의무화를 실시하고, 2012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 사업장의 가입확대를 위해 중기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2015년 7월에 도입하고, 여기에 가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자산운용수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현재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였는데 향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5년부터 별도로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둘째로는 자산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제 등을 합리화 하고 있다. 먼저 DC형 및 IRP에 대해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DB형 수준으로 완화하고 있다.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현행 40%로 제한하던 것을 DB형과 같은 수준인 70%로 완화한다. 그리고 현재 계약형만 허용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에 추가로 기금형을 2016년 7월부터 도입할 예정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주 : 2014년 6월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예정이다. 그리고 기금형의 형태로는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를 도입하고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계약형 제도에 대해서는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DB형에 대해 투자위원회 구성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인연금 측면에서는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요구가 반영된 의료비 인출가능 상품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화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의 부여와 예금자보호 한도 적용 등 수급권 강화 추진

마지막으로는 연금화를 유도하고,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의 강화이다. 연금화의 유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을 장기간 유지시 운용수수료의 할인 혜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도해지 등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과세체계 측면에서는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즉 연금수령시 세액을 일시금 수령시 세액의 70%만 산정해 세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줌으로써 연금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측면에서는 기업 파산으로 인한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DB형의 사외적립비율을 현재 70% 수준인 것을 2020년까지 100%로 상향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DC형 및 IRP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분야	세부 추진 내용
퇴직연금 도입 및 가입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2년까지 단계별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실시 · 신설사업장의 퇴직금제도 설정 의제규정 식제를 통해 퇴직연금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 강화 ·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15.7월 도입 ·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 -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 ·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3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신설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의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상향하고,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폐지 ·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5.7월부터 전면 금지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형 제도를 16.7월부터 도입하여 계약형과 병행 운영 · 대규모 기업부터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 -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형 설정 기업에 대해 16년 500인 이상 기업부터 투자위원회 구성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화 · 영세기업들은 DC형 퇴직연금을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개인연금 상품을 의료비 인출 가능 상품 등 다양화 추진
수급권 보호 및 연금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형 사외적립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상향하고, DC 및 IRP에 대해 예금자보호한도 별도 적용 · 15년부터 판매, 운용 등 모든 단계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시행 - 사적연금의 장기보유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의 장기유지시 운용수수료 할인 · 퇴직연금 자산을 활용한 담보대출 활성화 및 부득이한 사유 인출시 세부담 완화(12%로 분리과세) · 연금으로 수령시 15.1월부터 일시금 수령시 세액의 70%만 산정하여 세부담 30% 경감 · 고액퇴직자에 대해서는 16.1월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공제로 전환하여 일시금 수령시 세부담 강화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설계센터 등의 설치를 통해 노후설계관련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연금사업자의 장수위험 대비 위한 방안 마련

| 자료 : 기획재정부

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해 줄 예정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공시정보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 위험의 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차원에서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투자자문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사적연금의 활성화와 더불어 증권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우선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 적립금의 수익률 개선, 유지율 제고를 통한 연금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 단계별 가입 의무화, 영세 사업장에 대한 가입시 재정적 지원, 적립금 별도 세액공제 신설, 사외적립비율 강화 등 수급권의 보호 등은 가입률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DB형 등의 위험자산 편입 한도 완화, 기금형 제도의 도입, 운용사의 자사상품 편입비율 금지 등은 적립금의 수익률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유지율 제고 및 연금화 또한 연금수령시 상대적 세제혜택 강화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향후 적절하게 이행된다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기 때문에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제고를 통한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부가적으로 증권시장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자산의 편입 한도 확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 단계적 강화, 기금형 제도의 도입 등이 증권시장으로의 자금유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DC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확대 및 예금자보호한도 별도 적용, DB형 사외적립비율 상향도 간접적으로 증권시장

으로의 자금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운용자산의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 IRP와 개인연금의 통합 운용 고려 필요

향후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 실행과정에서 보다 성공적인 내실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위험자산 편입한도 확대, 기금형 제도 등의 도입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운용자산의 손실위험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의 책임강화, 연금자산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적립금 운용에 따른 위험 및 성과의 엄격한 감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주택구입, 긴급 생계비 등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개편안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 및 차입상품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기보다는 전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편이 더 선호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의도한 일시금 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사채처럼 자금의 긴급 수요가 발생할시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자산증식 상품의 개발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는 개인연금과 IRP의 통합을 통한 세제혜택 상품의 단순화가 요구된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IRP에 대하여 별도의 3백만원 세액공제가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미 개인연금을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IRP의 적립이 요구된다. 그 결과 개인들은 개인연금과 IRP 등 2개의 연금에 대한 운용이 요구되는 데, 실상은 금융지식 등의 부족으로 하나의 연금도 운용하는데 있어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사의 경우 사적연금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더불어 자산관리 능력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글로벌경제를 좌우하는 미국의 경제와 정책 방향”

연구위원 곽영훈
(yhwak@hanafn.com)

“최근 들어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빨라지고 있다. 당연히 통화정책기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지속성에 제약이 있거나 미국 외의 세계경제가 부진하다면 미연준도 정책기조를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정책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에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기조가 변경될 경우 그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의 흐름과 정책 대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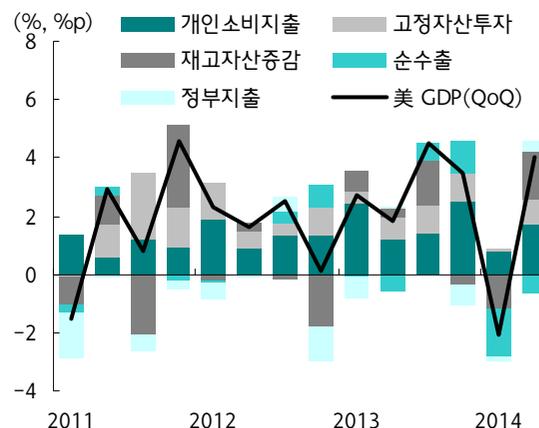


미국 경제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적은 없었지만 요새처럼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다. 미국 경제의 현상이 유로존, 일본, 중국 등의 경기둔화 우려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데다가 향후 진행될 금융정책의 항방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다시 말해 미국의 경기회복과 통화정책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과 교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더 커진 상황에서 세계의 이목이 미국에 쏠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미국경제의 빠른 회복세와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의 부상

최근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들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정책기조를 둘러싼 논란도 활발해지고 있다. 연초만 해도 ISM지수, 경기선행지수 등 경제지표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부동산가격 약세와 소비둔화 등 경제 전반이 부진했다. 2013년 중반 이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한데다 2014년 초에는 흑한, 폭설 등 기상이변까지 겹치면서 경제전망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미연준마저도 GDP성장률이 상반기중 마이너스, 연간으로도 2%를 하회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경기전망을 내놓았다.

미국 주요 경제지표 추이



|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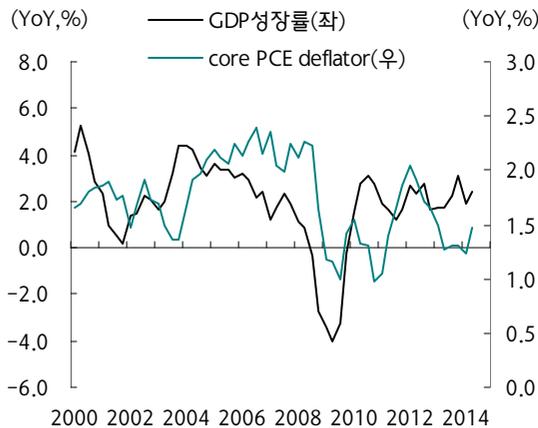
그러나 금년 초부터 금리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최근 부동산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주가도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GDP성장률 역시 1/4분기 -2.1%까지 하락하였으나 2/4분기에는 4.2%로 회복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는 해소되었다. 최근에는 경기선행지수의 상승 전환은 물론 소득과 소비지표의 개선도 시작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져 조기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미국경기회복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공존

문제는 경기회복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미국경제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회복을 달성하였고, 물가가 갑자기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며, 주식시장 등에서는 버블 조짐이 보이므로 조기에 금리인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반면 외형적인 경기회복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경기회복이 불충분하며, 금리인상시 경기회복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미국경제의 핵심인 고용과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이 견해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GDP성장률은 물론 물가상승률 회복 추세도 고려하여 향후 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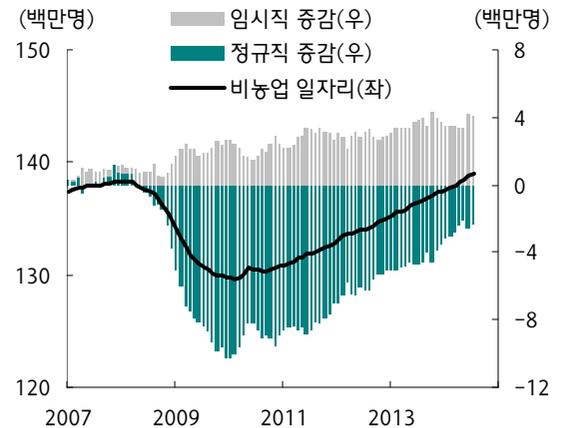


| 자료 : St. Louis Fed

경기회복의 핵심인 고용상황, 양적 회복은 충분하나 질적 개선이 미흡

미국의 고용상황은 외형상 매우 빠르게 개선되어왔지만 질적 회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적 지표 회복만 보면 미연준이 통화정책의 기초를 서둘러 변경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미연준 의장을 포함한 신중론자들은 정책기조 변경 후에도 고용시장의 호조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인 것 같다.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변화로 고용시장의 질적 회복에 한계가 발생했고, 회복세가 경기전반에 확산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 근거는 첫째, 실업률이 금융위기 직후 10%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최근 6.2%로 떨어졌다. 미연준은 한때 실업률 6.5%를 forward guidance로 설정한 적이 있다. 실업률이 6.5%까지 하락하면 금리인상을 고려하는 등 통화완화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일종의 목표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미연준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실업률이 낮아졌어도 경제 전반의 회복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참가율 하락으로 실업률이 실제 고용상황보다 더 떨어질 수 있었고, 실업률로 표시할 수 없는 고용의 질 저하 등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용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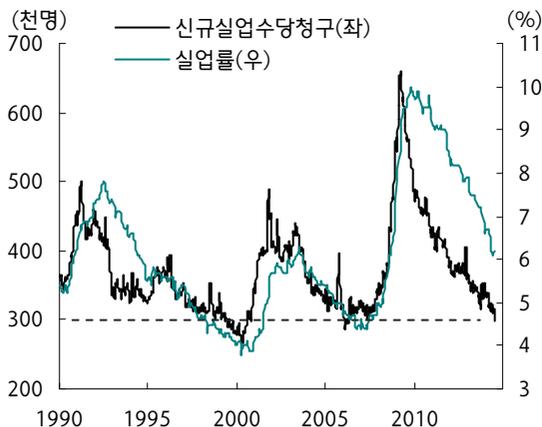
| 주 : 임시직, 정규직 증감은 2007년 1월 이후의 누적치
| 자료 : St. Louis Fed

심지어 금년 5월 이후 총고용자수는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규직 일자리는 위기 전보다 300만개 이상 감소한 상태이다.

둘째, 임금상승률도 금융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소비 회복이 지연되는 이유이다. 금융위기 이전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전년비 4%를 상회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그 증가율은 2% 안팎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기업수익은 위기 이전보다 훨씬 증가하였지만 그 성과가 고용이나 임금에 충분히 파급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양적 지표의 개선추세마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업률 역시 6.1%까지는 빠르게 하락해 왔지만 향후에는 그 하락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선행지표인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이미 30만건을 하회하고 있다. 이는 고용상황이 최고조에 도달할 때의 수준이다. 이 수치가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렵다는 것은 고용회복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해 실업률이 5%대로 하락할 경우 물가상승압력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금융당국이 정책기조를 변경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금리상승이 고용회복을 억제하게 된다. 향후 추가적인 실업률의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이다.

실업률과 신규실업수당청구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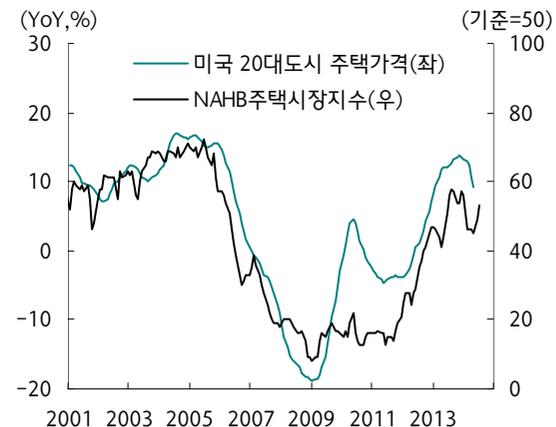
자료 : BLS, St. Louis Fed,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금리민감도를 감안한 신중한 정책기조 변경 예상

미국 부동산경기는 금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정책변화 자체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이 금융 위기를 초래한 핵심부문이었기 때문에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과 이에 따른 시중금리의 변동을 통해 부동산경기의 금리탄력성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부동산경기는 금융위기의 발생과 완화의 과정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왔다. 미연준은 1차 양적완화(QE1)을 통해 MBS를 1.1조달러 매입함으로써 주택시장의 붕괴를 막았고, 2012년 중반 3차 양적완화(QE3)를 통해 주택시장의 본격 회복세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2013년 중반부터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자 부동산시장의 활력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과 부동산시장의 관계, 그리고 지난 1년간의 금리동향과 주택시장의 관계를 보면 부동산시장의 금리민감성이 더욱 더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중반부터 경기회복을 주도해왔던 주택경기가 2013년 말부터는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라 회복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연초부터 다시 금리가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택가격과 주택경기의 추이



자료 : BLS, St. Louis F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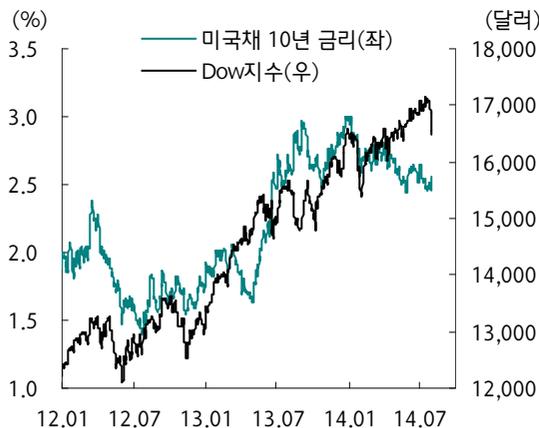
이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상의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금리인상 등 정책기조 변화의 당위성으로 제시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경기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질수록 경기회복의 기대에 기반한 정책변경이 오히려 그 기반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의 원인과 지속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 영향력도 다각도로 고려할 가능성

부동산시장의 금리민감성 못지않게 주식시장의 유동성 영향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정책기조의 변화가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가는 기업실적의 영향을 받지만 유동성 흐름을 기초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부각 등으로 유동성 흐름이 제한되면 주가하락 등 금융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커진다. 정책변경의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정책변화가 미국내의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고용과 소비 등 실물경제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진행되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세계경제의 정체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미국 정책당국이 자국의 경제상황만을

미국 금리와 주가 추이



|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고려해 정책기조를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미국경제의 기초 여건을 살펴 그 가능성을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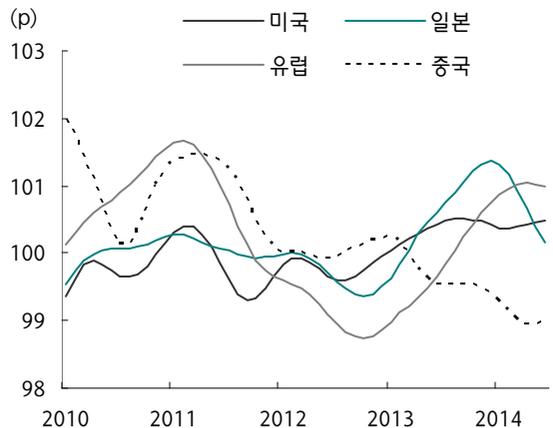
미국경제에 대한 정책의 영향이 커 정책당국의 신중한 접근 예상

미국 경기회복이 외형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제한적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고용과 부동산경기의 질적인 회복과 자산가격의 추세적인 상승을 바탕으로 가계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소비도 추세적인 회복이 가능해져야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정책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은 대부분 정책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년의 금리변화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의 변동성 확대로 간접적이거나 정책변경의 영향력을 확인한 정책당국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대외환경도 미연준의 정책기조변경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통화완화를 지속하는 일본, 디플레 압력에 직면한 유로권 등 외부상황이 미국 통화정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연준이 이미 금리인상 시점, 인상 후의 단기금리조절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경기선행지수



| 자료 : OECD



금통위 의사록 공개후 추가 금리인하 기대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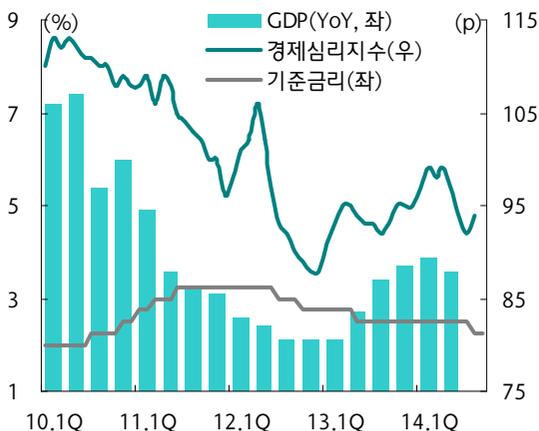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는
시중금리의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8월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단행 이후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며 반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월말 유럽발 글로벌 금리 하락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 역시 7월말 수준으로 재 하락하였다.

8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및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 장기화 우려 등을 감안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다. 한편 한은 총재가 금번 금리인하는 경제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임을 강조하며 경기회복세에 대한 기존 전망을 고수하였고, 정책공조 차원의 단발성 인하임을 시사함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약화되었다.

8월 대외경제는 미국이 완연한 경기회복세를 이어갔

경제심리지수와 경제성장을 및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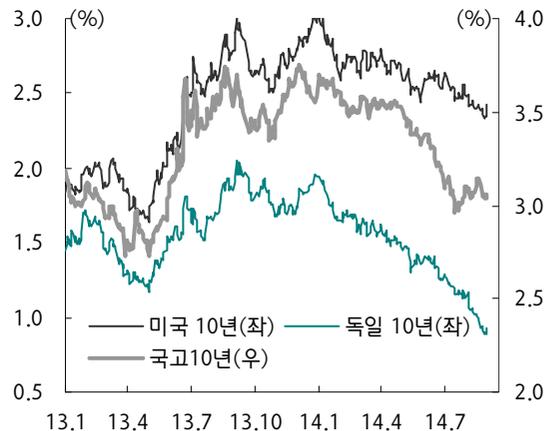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으나, 유럽은 경제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더해져 경기회복 기대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잭슨홀에서 ECB 총재가 추가 양적완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美 연준 의장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글로벌 채권시장 강세 현상이 심화되었다.

한편 국내 경제지표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재차 하락(7월:1.6%→8월:1.4%)한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의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 진입 가능성 언급은 추가 금리인하 기대를 재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금리인하 효과의 불확실성, 가계부채 악화 우려, 향후 정책여력 확보 필요성 등은 추가 금리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금리 하단을 강화시키는 분위기이다. 또한 금통위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들이 추가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금리인하 기대는 점차 약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뚜렷한 경제지표 개선세 확인 전까지 금리 반등 압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ECB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및 양적완화 가능성과 美 연준의 출구전략 논의 확대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차별화된 전개 방향은 국내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글로벌 국채 금리 추이



자료 : Infom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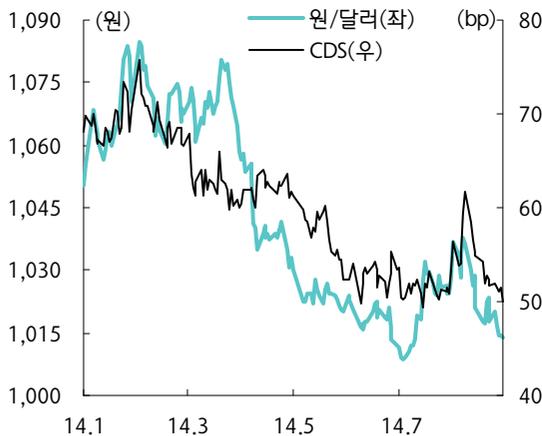


환율은 주요국 경기회복 및 통화정책 차별화에 주목

“환율의 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대내외 잠재적 불안요인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동성 위험에 유의”

8월 들어 원/달러 환율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 속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지면서 상승압력이 증대되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미국의 이라크 공습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환율은 1,040원대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2.50%→2.25%)에도 불구하고 기대 선반영,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악화 등으로 환율은 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되는 가운데 韓 CDS 프리미엄 하락,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세 지속,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 등도 원화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며 환율은 1,010원대로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 및 韓 CDS 프리미엄



주 : CDS 프리미엄은 5년물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국내 무역(8월 34억달러) 및 경상수지(7월 79억달러) 흑자 기초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세도 이어지는 등 대내 달러화 공급 우위 속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압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ECB의 추가 완화책 및 BOJ의 양적완화 연장 기대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강화, 글로벌 유동성 확대 가능성 등도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10월 예정)를 앞둔 상황에서 美 경제지표 개선 및 물가상승 압력 증대로 美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부상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 제재, 디플레이션 위험 등으로 유로존의 경기둔화 우려가 고조되고, 일본 역시 소비세율 인상 충격의 장기화 가능성으로 경기회복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특히 이러한 주요 선진국 간의 경기회복 및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율이 당장에 1,000원선을 하회하기 보다는 1,000원대 초중반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경기 및 통화정책 향방, 지정학적 리스크, 정부개입 경계심 등에 따른 변동성 위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통화의 내재적 변동성



주 : 내재적 변동성은 3개월물 기준
자료 : Bloomberg



주식시장은 변동성 높은 박스권 횡보 흐름이 지속될 전망

“이익증가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및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

국내 증시는 최근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설, 중국과 유럽의 경기모멘텀 둔화 등으로 인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정책공조 강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으나,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증시는 모멘텀 소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1.4조원을 순매수하며 5개월 연속 순매수 우위 기조를 유지했다.

9월 국내 증시는 중국과 유럽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실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미국 QE3 종료가 임박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

대가 낮아지면서 일시적인 정책공백기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동성 높은 박스권 횡보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 기업 이익증가율(YoY)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여 해당 업종과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 증시는 조정 국면에 들어설 듯

유럽 경제지표 부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우려 등으로 인해 글로벌 증시는 조정을 받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은 이전 고점을 상향 돌파한 반면 하락 폭이 컸던 유럽은 월초 지수 부근까지 반등했다. 한편 일본은 아베의 신성장정책 이후 투자심리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실물지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유럽 증시는 디플레이션, 경기 부진 탈피를 위한 ECB의 통화완화 정책 기대, 미국의 저금리 기조 지속 등은 긍정적이나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해 보여 횡보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예상되나 금리인상 속도는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밸류에이션 매력 등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KOSPI지수 및 외국인 순매수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유로존 경기기대지수 및 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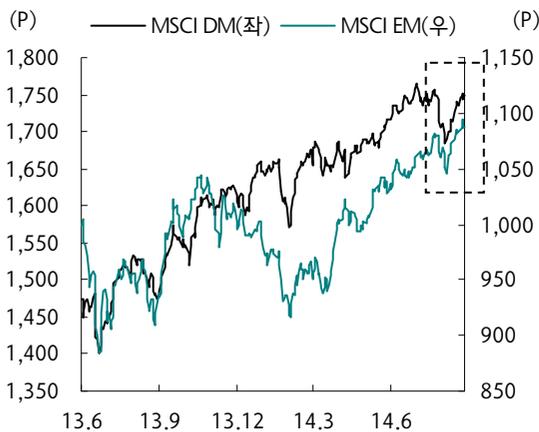


자료 : 하나대투증권

신흥국 증시는 당분간 선진국 증시와 보폭을 맞추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신흥국 증시는 비교적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했고, 글로벌 증시가 반등세를 보일 때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실물지표 호조 및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감 부각 등으로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으며, 인도 또한 모디 정부의 개혁 기대감으로 금융시장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브라질의 경우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시장이 강세를 보였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증시 또한 하락했다. 9월 신흥국 증시는 최근 밸류에이션 상승에 따른 부담감, 미국 테이퍼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듦에 따른 자금 회귀 우려 등이 부담이나 선진국 통화완화정책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회복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선진국과 보폭을 맞추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 경기둔화 방어를 위한 소규모 부양책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MSCI 선진시장, 이머징시장 추이



| 자료 : 하나대투증권

원자재는 소폭의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며 리츠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할 전망

원자재 중 원유 시장은 지난 7월 미국의 원유생산이 27년래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공급과잉 우려로 WTI 유가가 연중 최저치 부근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지속했다. 농산물도 별다른 기상 이슈가 없어 공급량 과잉으로 가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미국 리츠는 7월 후반에 나타난 가격조정이 8월 중 모두 만회되면서 차익실현성 일시 조정은 투자기회임을 확인시켰다. 9월 원자재 시장은 중국의 단기부양책 기대가 있는 기초공급이 펀더멘탈 상 유리하나 낙폭이 큰 에너지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달러강세의 본격화로 안전자산의 대체재 성격을 보이는 귀금속은 상대적인 약세가 예상된다. 리츠의 경우 단기조정제에 대한 빠른 회복이 있었으나 상반기 수준의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조정 시 매수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금리 및 리츠 지수 추이



|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조사 재직 L씨, 과도한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 필요

제조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L씨(52세)는 60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생존하며, 은퇴 후 매월 약 200만원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L씨가 8년 후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매월 약 24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L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월 3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6,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령한 퇴직금을 60세부터 85세까지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매월 29.5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개인연금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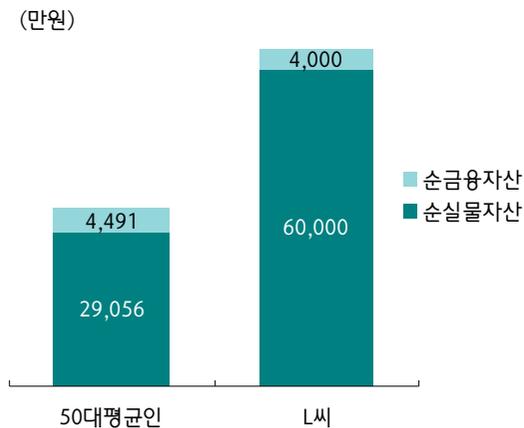
한편 I씨는 현재 6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순실물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순금융자산은 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L씨는 순실물자산이 50대 평균인 대비 많은 편이며, 순금융자산도 적진 않으나 개인연금 미가입 등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투자 가능한 순금융자산의 비중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필요 생활비에서 차감하면 은퇴 후 월 부족자금은 185.5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85세까지 필요한 월 부족자금 총액의 현재가치를 합산하면 약 4억 785만원이 된다.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금융자산 4,000만원과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2억 5천만원을 합산하여 운용할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약 4.35%의 수익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안정추구형 전략의 목표 수익률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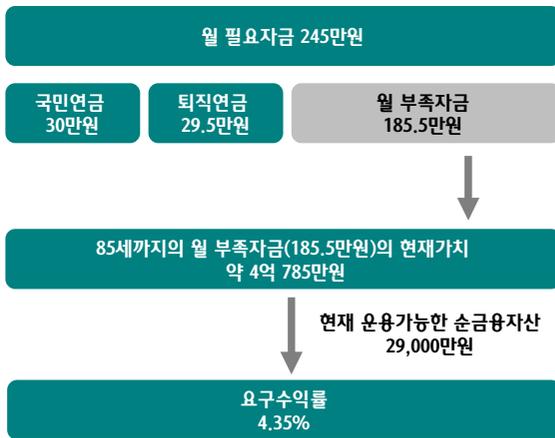
I씨는 50대 평균에 비해 순실물자산은 많으며, 순금융자산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은퇴 시점까지 금융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도 짧은 편인 만큼 순금융자산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운용이 수반된다면 원활한 노후 준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50대 평균인과 L씨의 재무상태 비교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L씨의 노후준비를 위한 요구수익률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전략이 유효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성향은 수익추구형, 표준투자형, 안정추구형 등으로 분류된다. L씨가 현 상태로 노후 준비를 유지해나갈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수익률은 4.35%로 계산되었는데, 앞선 투자성향을 고려하면 L씨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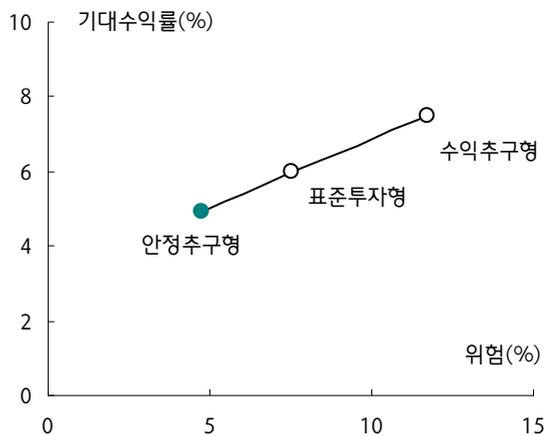
9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투자비중은 국내주식 10.0%, 국내채권 22.5%, 해외채권 5.0%, 대안형자산 35.0%, 현금성자산 27.5%로 설정하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며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투자 유형인 안정추구형은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나,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채권 및 대안형자산에 투자하며, 수익추구를 위해 주식에도 일부 투자한다.

안정추구형 전략은 국고채 및 채권형 펀드 등 안정형 위주의 상품으로 운영되는데, 국내 채권의 경우 8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 감소가 금리 하단을, 글로벌 완화 기조 유지 등이 상단을 제한하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 채권의 경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스탠스 유지 및 지정학적 위험 등이 금리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이일드 채권의 가격조정도 일단락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향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주식의 경우 변동성 높은 박스권 횡보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고배당주 및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변동성 장세에 대비할 수 있는 중위험형 및 구조화 상품 등의 대안형 자산 및 현금성자산 비중 또한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 자료 : 하나대투증권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자산구분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국내주식	10.0	13.0	27.5
선진국주식	-	7.5	20.0
이머징주식	-	7.0	17.5
국내채권	22.5	12.5	5.0
해외채권	5.0	10.0	7.5
대안형	35.0	35.0	19.5
현금성	27.5	15.0	3.0

| 자료 : 하나대투증권

투자상품은 안정성을 중시하며 원금보존을 추구하도록 구성

9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전월과 동일하게 채권 등 안정형 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해외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의 10.0%를 차지하는 국내주식은 일등기업 중심의 장기투자 원칙을 중시하는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주식) A, 배당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와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신영밸류고배당(주식) A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22.5%를 투자하는 국내 채권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국내 공공물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잠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물가연동국고채(13-04), 우량 회사채에 60%, 기업어음 등에 나머지를 투자하는 정통 회사채 펀드인 흥국멀티플레이4(채권) C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5.0%를 투자하는 해외 채권은 미국 하

이일드 채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자본수익을 함께 추구하는 미래에셋노무라미국하이일드(채권-재간접) A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35.0%를 투자하는 대안형 중 10%를 차지하는 중위험형 상품은 국내주식을 중심으로 롱숏전략, 공모주/이벤트 활용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유리트리플알파(주식혼합) A에 투자한다. 또한 10.0%를 차지하는 혼합형 상품은 채권의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극적인 주식 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하이실적포커스30(채권혼합) A에 투자하며, 나머지 15.0%를 차지하는 구조화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양방향 원금보장형 ELS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UBS 신증MMF(S-26호) C에 27.5%를 투자한다.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구분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자문사	비중	투자기간	목표수익률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국내주식	성장형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주식) A	에셋플러스	5.0%	6개월	10%
		가치(배당형)	신영밸류고배당(주식) A	신영	5.0%	6개월	8%
	채권	국내	물가연동국고채(13-04)	-	10.0%	9년	연 4%
			흥국멀티플레이4(채권) C	흥국	12.5%	1년	3%
	대안형	해외	미래에셋노무라미국하이일드(채권-재간접) A	미래에셋	5.0%	6개월	3%
		중위험형	유리트리플알파(주식혼합) A	유리	10.0%	6개월	3%
		혼합형	하이실적포커스30(채권혼합) A	하이	10.0%	6개월	4%
	현금성	-	양방향 원금보장형	하나대투	15.0%	1년	연4%
			하나UBS 신증 MMF(S-26호) C	하나UBS	27.5%	단기	연2.2%
	합계					100.0%	
개인연금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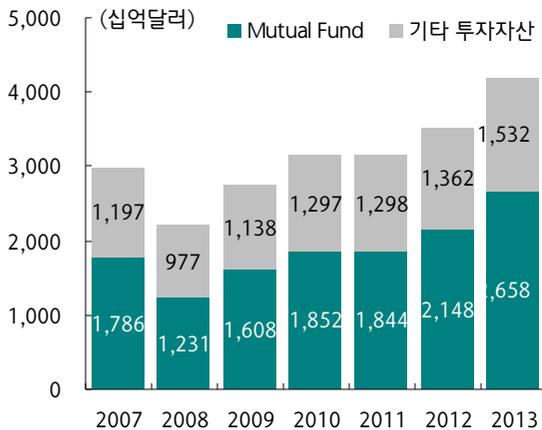
주 :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
 2) 유형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위 자산배분의 정확성 및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자료 : 하나대투증권

“ 2013년 401(k) Plan의 서비스,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분석 ”

“401(k) Plan은 주로 뮤추얼 펀드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데 전반적으로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비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

ICI(Investment Company Institute)는 2013년 미국 401(k) Plan에 대한 투자, 서비스, 수수료 및 비용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401(k) Plan 자산은 2013년 기준으로 4.2조원 규모인데 뮤추얼 펀드와 기타 투자자산에 각각 63.4%, 36.6%의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1(k) Plan 총자산 중 뮤추얼 펀드의 비중은 금융위기 당시 위험 자산의 회피심리 등의 영향으로 2008년 55.8%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 후 투자심리의 호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63.4%까지 증가하였다. 뮤추얼 펀드에 투

401(k) 플랜의 자산구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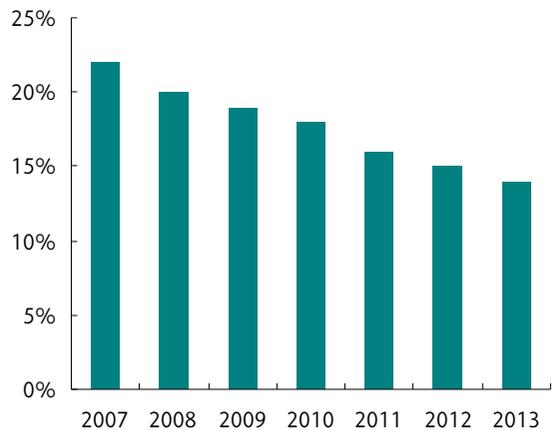


| 자료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자 된 401(k) Plan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2.7조원 중 주식형 펀드에 투자된 비중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혼합형 펀드가 25%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서 채권형 펀드가 12%, MMF가 4% 비중으로 편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401(k) Plan 자산은 판매수수료 등 비용이 낮은 뮤추얼 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매수수료 부과 등으로 비용이 높은 뮤추얼 펀드의 비중은 2000년 33%에서 2007년에는 22%까지 낮아졌고, 2013년에는 14%까지 낮아졌다. 반면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뮤추얼 펀드의 편입 비중은 2000년 67%에서 2013년에는 86%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식형 펀드의 경우 판매 수수료가 없는 펀드의 비중은 2000년 62%에서 2013년 86%로 크게 높아졌다. 혼합형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없는 펀드의 비중은 2000년 75%에서 2013년 79%로 비중이 높아지며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주식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채권형의 경우는 2000년 79%에서 2013년 86%까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401(k) 뮤추얼 펀드의 판매 수수료 부과 자산비중



| 자료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401(k) Plan의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이 지불하는 비용률(가중평균자산 대비 총비용)은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평균 비용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01(k) Plan의 뮤추얼 펀드에 있어서 가장 높은 편입 비중을 보이고 있는 주식형 펀드의 비용률은 2000년 0.77%에서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0.58%까지 낮아지고 있다. 이는 2013년 기준 주식형 펀드 산업의 비용율 0.7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혼합형 펀드의 경우도 비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시현하며 2013년에 0.58%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산업평균 0.8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채권형 펀드는 상대적으로 타 펀드에 비하여 낮은 비용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기준 0.48%를 기록하였다.

비용률에 따른 401(k) Plan의 뮤추얼 펀드 분포를 보면 주식형과 혼합형은 비용률이 0.50%~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채권형은 0.5% 미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형의 경우 0.50%~1%의 비용률을 가진 펀드의 비중이 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0.5%미만은 38%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1%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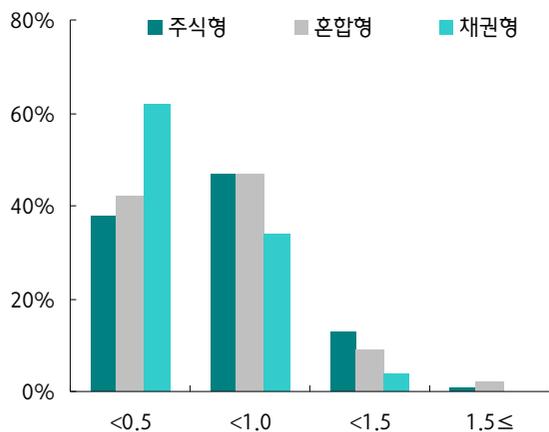
상의 비용률을 가진 펀드의 비중은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01(k) Plan 뮤추얼 펀드의 또 다른 비용 요소인 유가증권 매매관련 비용은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통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01(k) Plan 주식형 뮤추얼 펀드의 회전율은 2009년 49%로 최고치를 형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35%까지 낮아졌다. 이는 산업평균 41%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401(k) Plan 뮤추얼 펀드의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뮤추얼 펀드들이 투자자들에게 보다 높은 성과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금융상품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플랜 스폰서 및 참여자들이 비용과 성과를 의식한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자들이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펀드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에 의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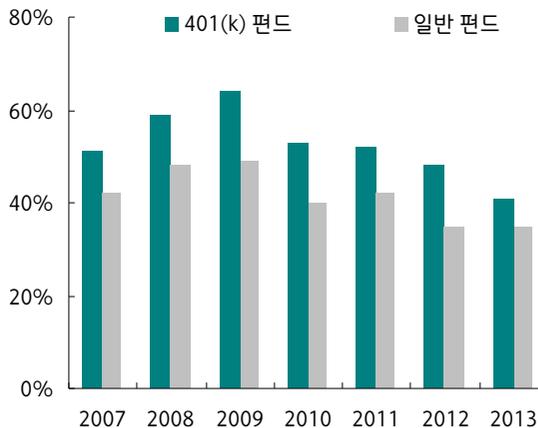
(“The Economics of Providing 401(k) Plans: Services, Fees, and Expenses, 2013,” ICI, 2014. 7)

401(k) 뮤추얼 펀드 수수료 비용률에 따른 분포



| 자료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

뮤추얼 펀드의 평균 포트폴리오 회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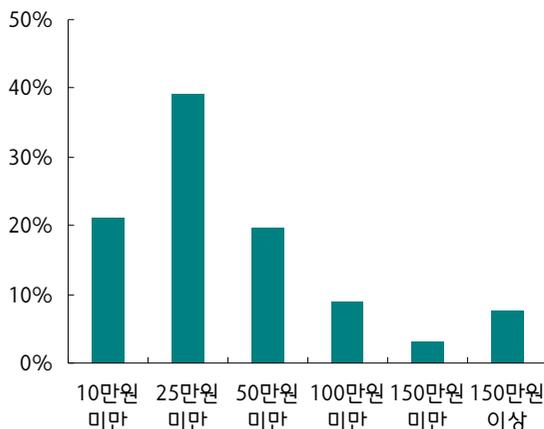
| 자료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

“**고령층의 경제활동에 관한 부가조사 결과 발표**”

“고령층들은 낮은 연금 수령으로 인하여 높은 경제활동 참가와 더불어 생활비 충당을 위하여 취업을 희망”

통계청이 지난 5월 고령층(55~7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활동에 대한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자료에 의하면 고령층 인구 11.3백만명 중 45.7%가 연금을 수령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50.1% 연금을 수령하며 여성의 41.8%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42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만원 증가하였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의 분포를 보면 10~25만원 미만이 전체의 39.3%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10만원 미만과 25~50만원 미만이 각각 21.2%, 19.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50만원 이상 높은 연금 수령자의 비중은 7.6%로 전년대비 0.6%p가 증가한

고령층 연금수급자의 연금수령액별 분포



주 : 55~79세 고령층 11.3백만명 중 연금 수급자 5.1백만명의 월평균 수령액 분포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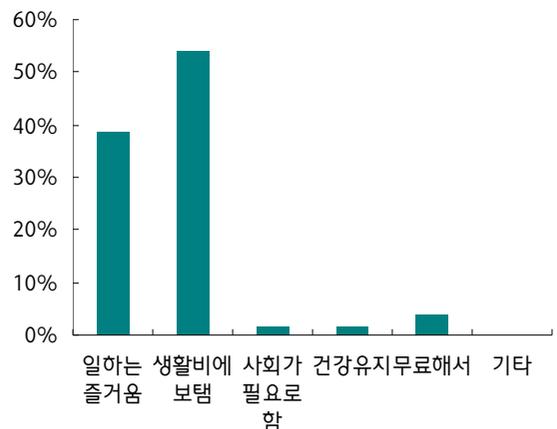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낮은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이 큰 비중을 보 이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5월 기준으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55.1%로 전년동기대비 1.1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률도 2014년 5월 기준으로 53.9%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0.9%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 취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5.5%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2.4%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취업희망 및 동기 조사에서는 고령층 인구 중 62.0%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취업희망 동기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일하는 즐거움'이 38.8%로 높게 조사되었다. 장래 일자리 선택기준으로는 '일의 양과 시간대'가 28.0%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임금수준', '계속 근로 가능성'이 각각 23.1%, 18.6%로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13.0%는 '일의 내용'을 선택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201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2014. 7)

고령층 취업희망자의 취업동기



주 : 55~79세 고령층 중 취업희망자 7.1백만명에 대한 분포
자료 : 통계청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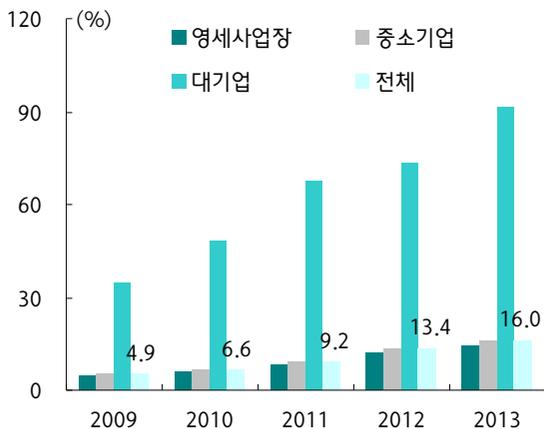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기금형 제도의 도입, 엄격한 위험자산 운용규제 폐지내지 완화, 퇴직연금제도의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의무화 등이 제시”

국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퇴 이후 노후 소득 확보가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지만 연금가입률이 낮고,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 준비가 한계를 보이면서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배경으로 지난 8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세미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¹⁾이라는 주제가 발표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국내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사적연금의 현행 문제점들을 평가하고, 향후 활성화를 위한 사적연금의 개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현재 국내 사적연금의 문제는 퇴직연금의 경우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가입률은 낮은 수준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자료 : 금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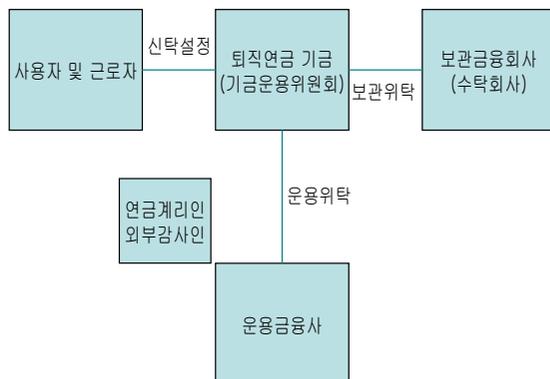
1) 강동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2014. 8

있는 점이다. 개인연금도 전반적으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족으로 낮은 가입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계약형 연금제도만 허용되어 있어 연금가입자들의 연금운용 과정 참여 제한, DB형의 경우 수급권의 불안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엄격한 적립금 운용 규제로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의 보완과 더불어 사적연금의 활성화 방안으로 먼저 기금형 도입과 기금형 요소의 도입을 통한 계약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기금형의 도입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되었다. 적립금 운용 규제의 개선으로는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전면 폐지,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만 관리하고 개별 위험자산별 한도관리는 폐지 또는 완화 등이 제시되었다. 가입률 및 유지율 제고 방안으로는 기업규모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IRP 및 개인연금의 증도해지 금지 강제화와 사적연금통합관리계좌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수급권 보호 방안으로는 DB형의 사외적립비율 단계적 및 점진적 상향과 더불어 기업도산 및 적립금 운용부실에 대비한 별도 지급보증제 도입과 운영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KDI·한국노동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2014. 8)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



자료 : KDI

연금저축계좌 2013년 새롭게 변경된 연금저축상품

절세와 자산증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대비 가능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난 1994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특히 2013년부터는 개인연금시장의 확대 차원에서 기존 상품보다 가입조건과 세제혜택, 자산운용방식 등을 가입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다. 만 18세 이상이었던 가입연령 제한도 없어져 어렸을 때부터 연금저축으로 목돈을 불릴 수 있다. 다음으로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분기당 300만원이던 납입한도가 없어지면서 연말에 가입해 한 번에 1800만원을 불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연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은 최소 5년이며,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납입 기간 중 납입 금액과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유지된다. 연금 수령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수령액에서 5.5%를 공제했던 연금소득세도 나이

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만 55~70세까지는 5.5%지만 71~80세는 4.4%, 81세부터는 3.3%로 줄어든다. 즉 연금을 오래 수령할수록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연금의 장기수령을 권장하기 위해 종전 연금저축에서 5년 이상이던 연금수령기간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15년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금융회사별 연금저축의 특징 고려해 선택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신탁, 펀드계좌, 보험으로 나뉜다. 신탁과 보험은 원금손실이 없고 예금자보호가 되는 안정적인 상품이며 펀드계좌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다. 기존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상품에만 가입할 필요 없이 신탁, 펀드, 보험 계좌에 골고루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 기존에는 하나의 펀드를 골라서 투자했지만 이제는 계좌를 만든 후 여러 가지 펀드를 담아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즉 주식시장의 추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를 원한다면 채권형 펀드의 비중을 늘리면 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를

연금저축계좌 유형별 비교

구분	연금저축 펀드계좌	연금저축 신탁계좌	연금저축 보험계좌
주요 판매사	은행,증권사	은행	보험사
수익	실적 배당	실적 배당	공시이율(최저보증)
안정성	원금 비보장/예금자비보호	원금보장/예금자보호	원금보장/예금자보호
납입방식	자유납입식	자유납입식	정기납입식
지급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과 종신지급형 중 선택
운용방식	주식형(주식 60% 이상) 혼합형(주식 60% 미만) 채권형(채권 60% 이상)	안정형(채권90%, 주식10%) 채권형(채권100%)	공시이율형
특징	가입자 선호에 따른 다양한 상품 선택 가능	납입원금보장	종신지급형의 경우 사망시점까지 수령, 단 중도해지시 불이익

원한다면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늘리면 된다. 뿐만 아니라 수익을 실현한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즉 자산시장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가능해 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률 제고를 통한 실질적인 은퇴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행복 knowhow

[연금저축계좌]

연금 Big EVENT

연금저축 자산관리
하나대투에서 시작하자!



자세한 설명은
휴대폰으로 확인하세요



연금 자산관리 동영상

행복 노하우 연금브랜드 론칭기념 Big EVENT



- 대상 : 연금저축계좌 신규 및 계약이전 고객 (※ 계약이전은 6시에서 당일로 이전여 인함)
- 기간 : 2014. 8. 1 ~ 2014. 12. 31 • 유지조건 : 2015년 2월 말까지 금액별 참고 유지
- 금액증정 : 고객별 자산금액에 의해 해당 금액 증정 (※ 본인 OVA제외로 입금, 저축명의로 발생시 본인 부담)

- 500만원 ~ 2,000만원 미만 : 1만원	- 1억원 ~ 2억원 미만 : 30만원
- 2,000만원 ~ 5,000만원 미만 : 5만원	- 2억원 ~ 5억원 미만 : 70만원
- 5,000만원 ~ 1억원 미만 : 10만원	- 5억원 이상 : 100만원

1588-3111

www.hanaw.com

금융투자업의 실시일 제14-055020(2014.06.19~2015.06.17)





9.1 후속조치 발표로 재건축 투자확대 기대감



“재건축 연한 축소 등 투자 호재,
분담금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

지난 9월 1일 정부에서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새 경제팀 출범 직후 발표한 7.24 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청약제도 개편, 신도시 건설 중단,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수급 균형책이 중심이 된 이번 후속조치에서는 재건축 활성화 제도가 특히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재건축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최장 40년(수도권)인 재건축 연한규제를 30년으로 축소하고 소형주택 연면적 의무 비율을 폐지하는 등 사업 여건이 다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9.1 부동산활성화 후속조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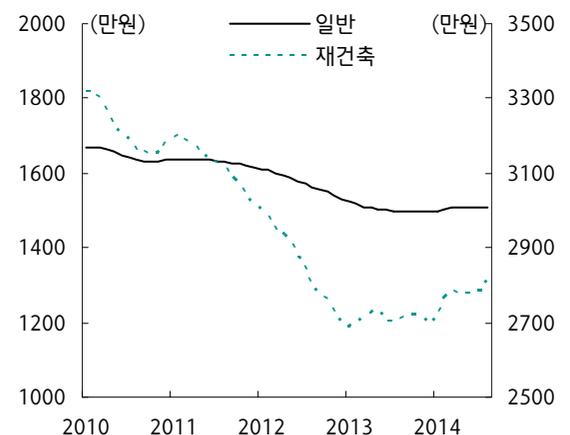
권역	주요 내용
재건축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건축 연한규제 완화(수도권 40년→30년)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비중 확대(15%→40%) ■85㎡이하 주택건설 연면적 의무(현행 50% 이상)를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60% 이상)만 적용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수도권 15% 이하)
청약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 지자체 자율운영 전환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입주자 선정 단순화(1·2순위 통합, 12회 이상 납부시 1순위)
주택공급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로 신도시 건설 중단 ※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기간 완화
서민주거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리츠 공급 확대('17년까지 8만호 공급) ■디딤돌 대출 금리 0.2%p 인하 및 LTV/DTI 규제 완화 ■주택기금 주택담보대출에 비소구대출 방식 적용

| 자료 : 국토교통부

올해 들어 재건축과 일반 주택시장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일반 아파트 가격은 2013년 말에 비해 0.8%만 오른 반면, 재건축 아파트는 4.2%나 가격이 상승하였다. 2010년 이후 19%에 이르는 가격 조정을 거치며 바닥을 다진데다 작년 4월 이후 지속된 정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에 몰려 있는 등 입지가 양호하다는 점도 재건축 아파트의 강점이다.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의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 강남·서초·송파·강동으로 대표되는 서울 핵심지역은 국내 주택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전자산에 해당한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 2010년 이후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하락폭은 일반 아파트(-10.4%)의 두 배에 이른다. 2013년 이후의 월별 가격변동률도 서울시 일반 아파트가 -0.6%~0.3% 사이인 반면, 재건축 아파트는 -1.0%~1.8%에 이를 만큼 편차가 크다.

서울시 3.3㎡당 아파트 가격 변화



| 자료 : KB은행

9.1 후속조치의 효과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투자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연한규제가 30년으로 축소되면서 재건축 추진가능 아파트 범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지난 1987년부터 1991년 사이에 준공된 전국 아파트 108만 가구(서울시 24.8만 가구)의 재건축 시기가 앞당겨져 오는 2021년 이전에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특히 강남권, 목동, 일산 등 이른 바 버블세븐 지역에서는 10만여 가구의 재건축 물량이 6년 내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연한규제를 충족한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받은 이후 이주·철거에 들어가기까지 통상 7년 가량이 필요하며 조합원 사이의 의견조정이 쉽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이 10년을 넘어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강동구 고덕 래미안힐스테이스 사례에서 보듯, 시장상황의 변화로 적정한 일반분양가를 확보하지 못해 분양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 주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 단지

권역	위치	단지	총가구수
서울 강남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2회차	1,612(213)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	421(49)
	서초구 서초동	서초 푸르지오 써밋	907(143)
서울 강북	성북구 보문동6가	보문파크뷰자이	1,186(483)
	성북구 정릉동	정릉꿈에그린	349(145)
	강북구 미아동	꿈의 숲 롯데캐슬	615(309)
지방	대구 동구 신천3동	대구신천동반도유보라	764(600)
	충남 천안시 신부동	동문굿모닝힐	2,144(1,300)
	대전 동구 대성동	은어송 코오롱하늘채2차	408(315)

* 괄호 안은 일반분양

자료 : 닥터아파트

재건축 사업추진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투자 확대의 걸림돌이다. 85㎡ 이하 주택을 연면적 기준 50% 이상 건설하도록 하는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던 데다 세대 수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또한 최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규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장상황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수요가 위축되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지면서, 투자자들이 고가 분양 상품인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투자 확대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서울시 주요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및 개포시영 단지의 경우 조합 설립 시점에 비해 실제 분양시점의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특히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전용 84㎡의 경우 1억원 이상 분담금이 증가한 경우도 있다. 결국 9.1 후속조치가 재건축 시장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현재 가격수준 및 향후 분양성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강남 주요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변화

서울 개포주공3단지

구분	전용 59㎡ 선택 시		전용 84㎡ 선택 시	
	조합 설립 시점	조합원 분양 시점	조합 설립 시점	조합원 분양 시점
기존 아파트				
전용 35㎡	4,900만원	7,600만원	3억9,700만원	4억200만원
전용 42㎡	-1억1,700만원	-3200만원	2억3,100만원	2억9,400만원
전용 50㎡	-3억2,300만원	-1억9,500만원	2500만원	1억3,100만원

서울 개포시영

구분	전용 59㎡ 선택 시		전용 84㎡ 선택 시	
	조합 설립 시점	조합원 분양 시점	조합 설립 시점	조합원 분양 시점
기존 아파트				
전용 35㎡	-1억5,000만원	2억3,385만원	4억4,780만원	5억386만원
전용 42㎡	-118만원	8,934만원	2억9,499만원	3억5,936만원
전용 50㎡	-1억7,500만원	-7,859만원	1억2,000만원	1억9,141만원

자료 : 매일경제

가을의 정취를 찾아 떠나보자

처서와 무더위가 지난 지금, 단풍나무가 무성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가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인 '억새'.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자. 산과 들에서 자라는 억새는 높이 1~2m로, 뿌리줄기는 모여나고 굵으며 원기둥 모양이다. 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지고 가장자리가 까칠까칠한 억새는 벼목 벼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억새는 바람이 불 때 으악 소리가 난다 하여 '으악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가을 다양한 곳에서 억새축제가 열린다. 이러한 억새축제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는 어디일까?



국내 명소의 억새축제로 가을 느끼기

1. 서울억새축제 - 상암동 하늘공원

월드컵 공원 내 가장 하늘과 가까운 곳이라 하는 '하늘공원'에서는 매년 10월 억새축제가 열린다. 하늘공원을 이용하는 길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산책로는 입구에서 정상까지 약 1.5km이며, 도보로 15~20분 정도가 소요된다. 두 번째로는 주로 정상에서 내려올 때 이용하는 291개의 하늘계단이 있다. 하늘계단은 중간 중간 잠시 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서울의 풍경과 한강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이다.

난지도 중 가장 높은 하늘공원의 정상에서는 서울의 모습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동쪽으로는 남산이, 서쪽

으로는 행주산성, 남쪽으로는 한강, 그리고 북쪽으로는 북한산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하늘공원의 전망과 더불어 아름다운 억새물결 사이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자.

- 행사기간 : 2014.10.17 ~ 2014.10.26
- 위치 :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95 (상암동)

2.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전국 5대 억새군락지 중 하나인 명성산은 6만평의 억새밭으로, 한번 가면 다시 오게하는 가을의 아름다운 명소이다.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자연과 사람을 품어 안은 즐거운 축제'라는 주제로, 포천 산정호수와 명성산에서 진행된다. 본 축제는 유명산악인과 923m 명성산 등반하기, 억새밭 작은음악회, 억새소원터널에서 소원지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억새꽃이 만발하는 명성산에서 가을 낭만에 흠뻑 취해보자.

- 행사기간 : 2014.10.11 ~ 2014.10.12
- 위치 : 경기 포천시 영북면 호국로3791번길 50-11 (영북면)

3. 강원 정선 민동산 억새꽃 축제

해발 1,118m의 20만평 가량 억새꽃이 가득한 민동산 또한 전국 5대 억새군락지 중 하나이다. 민동산 억새꽃 축제는 9km의 4시간 산행, 달집 소원성취문 달기 등의 상시 행사와 함께 열린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봐야 한다는 민동산의 가을냄새는 어떠할까?

- 행사기간 : 2014.09.19 ~ 2014.10.26
- 위치 :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3리

4. 기타 국내 억새밭 명소

- 보령 오서산, 창녕 화왕산, 제주 산굼부리 등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

씹을수록 고소한 맛과 향을 뽐내는 전어. 특히 가을이 되면 지방성분이 최고 3배까지 높아지고 살에 탄력이 붙어 고소함이 절정에 이른다고 한다. 그래서 가을에 가장 맛있다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별미 '전어'. 매년 가을 다양한 곳에서 전어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진미의 장(場)이 열린다.

1. 섬진강문화축제(구, 광양전어축제)
 - 행사기간 : 2014.09.26 ~ 2014.09.28
 - 행사장소 : 전남 광양시 망덕포구 (무접섬 광장)
2. 흥원항 자연산 전어 · 꽃게 축제
 - 행사기간 : 2014.09.20 ~ 2014.10.05
 - 행사장소 : 충남 서천군 흥원항 일원

본 전어축제에서는 전어회, 회무침, 구이 등 전어의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전어를 뼈 채 두툼하게 썰고 된장, 마늘을 곁들여 상추에 싸먹는 '뼈꼬시'와, 전어의 내장을 이용하여 젓을 담가 먹는 '전어젓'이 입맛을 돋구게 한다 하여 찾는 이들이 많다. 전어회는 숙취를 제거하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이 찾는 대표적인 가을 별미이다. 깊어가는 선선한 가을의 밤, 축제의 장에서 구수하게 익어가는 전어와 함께 맛있는 가을을 즐겨보자.



빨간 빛깔 가득 담은 싱싱한 대하

1. 흥성남당항대하축제
 - 행사기간 : 2014.09.05 ~ 2014.10.31
 - 행사장소 : 흥성 서부면 남당리 남당항 일원

1907년부터 매년 가을 남당항에서는 국내 최대의 대하축제가 열린다. 갯벌에서 조개, 대하를 잡는 등 다양한 행사와 맛 좋은 대하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미식가라면 꼭 가봐야 할 가을 진미의 명소. 생새우를 비롯해 구이, 찜, 튀김 등 싱싱한 새우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주는 환상의 불꽃축제

매년 10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과 서울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는 가장 화려하고 감동적인 밤, '불꽃축제'가 찾아온다. 본 축제는 다양한 음악과 어우러지는 초대형 불꽃과 더불어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쇼도 함께 연출된다. 광안대교와 한강 야경과 함께 펼쳐지는 불꽃축제를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부산의 경우 대부분 해수욕장에서 불꽃축제를 관람하지만, 황령산이나 수변공원에서 보는 관광객도 많다. 또한 서울불꽃축제의 경우에도 공원의 돛자리가 아닌 63빌딩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즐기며 감상하기도 한다. 100만의 인파가 몰리는 불편을 피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불꽃축제를 즐겨보도록 하자.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

주요 불꽃축제 일정

	서울불꽃축제	부산불꽃축제
기간	2014.10.04	2014.10.24~25
장소	여의도한강시민공원 (63빌딩 앞)	광안리해수욕장
사이트	Hangang.seoul.or.kr	www.bff.or.kr

하나은행-하나SK카드, 추석맞이 체크카드 이벤트 실시

하나은행과 하나SK카드가 추석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하나은행과 하나SK카드를 추석맞이 체크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기존 캐쉬백의 2배인 이용금액 1만원 당 400원 캐쉬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추석을 전후해서 체크카드 국내외 사용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하나대투증권, '행복 Knowhow 연금 Big 이벤트'

하나대투증권은 올해 말까지 타사로부터 계약 이전한 고객 및 신규 연금저축계좌 가입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복 'Knowhow Big 이벤트'를 실시한다. 본 이벤트는 행복노하우 연금브랜드 런칭기념 고객이벤트로 2015년 2월말까지 잔고를 유지하면 계좌 잔액별로 1~100만원의 캐쉬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 '호주 시드니 지점 사전 계좌발급 서비스' 시행

외환은행은 지난 3월 호주현지법인을 시드니지점으로 전환 후 호주 이민자 및 유학생을 위한 시드니지점 사전 계좌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한 동 서비스 시행에 맞춰 올해 말까지 서비스 신청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율 및 송금 수수료 우대, 현지 입금 수수료와 인터넷 뱅킹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나SK카드 - 하나생명, 제휴보험 출시

하나생명은 하나SK카드와 한국도로공사가 제휴해 출시한 '행복hi-pass+카드' 신청 고객에게 무배당 교통사고재해보험을 제공한다. 동 카드는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을 위해 출시되었으며, 카드 신청 고객은 자가운전 중 사고로 장애 발생 시 최고 600만원을 보장하는 하나생명의 교통사고 재해보험 혜택을 무료로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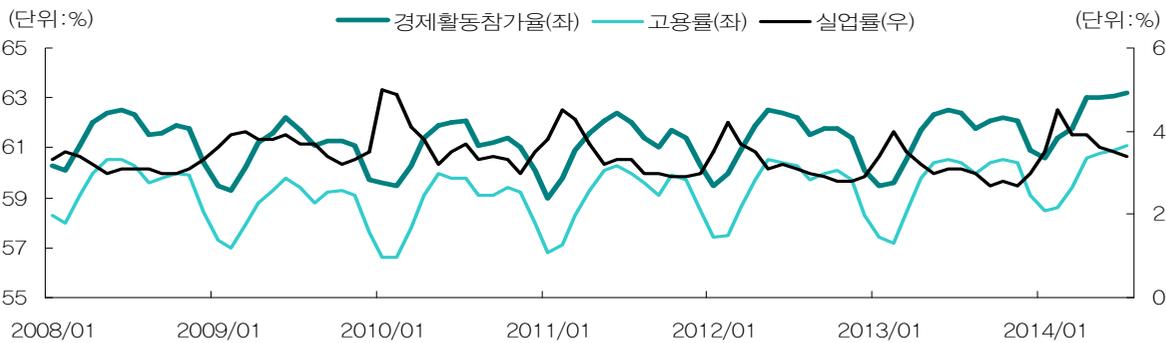


경제 활동

통계청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	61.5	7.7	61.6	75.4	80.0	74.5	39.1	59.5	6.9	56.8	73.2	78.4	73.1	38.3
2014.1~7	62.3	8.7	63.3	76.1	80.8	75.7	39.5	60.0	7.8	57.3	73.6	78.9	74.0	38.4
2014.6	63.1	8.0	63.6	76.8	81.0	76.5	42.0	60.9	7.3	57.5	74.2	79.3	74.7	41.3
2014.7	63.2	9.9	64.6	76.9	80.7	76.1	41.6	61.1	8.9	59.0	74.5	78.9	74.5	40.9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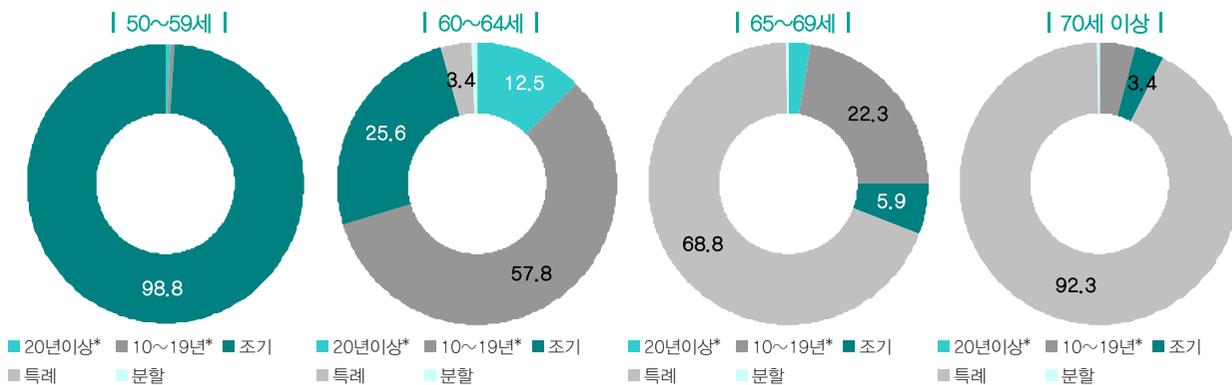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1. 가입자 현황

(개소, 명)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	20,744,780	1,290,557	11,935,759	8,514,434	1,962,071	6,552,363	177,569	117,018
2014.6	21,005,119	1,343,987	12,130,975	8,539,523	1,981,835	6,557,688	189,847	144,774

2. 2014년 6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	1,124	17,474
2010	2,016	30,361
2011	2,936	41,000
2012	5,013	69,006
2013	5,296	62,950
2014.6	394	4,364
2014.7	389	4,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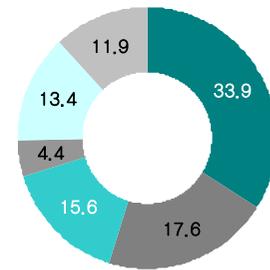


2. 2014년 7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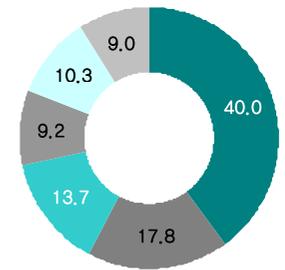
(억원)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1,467	98,504
신한은행	904	43,894
우리은행	674	33,828
하나은행	189	22,600
농협	578	25,400
기타	517	22,049
합계	4,329	246,275

보증공급액 기준



잔액 기준



■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농협 ■ 기타

퇴직연금

노동부, 금융감독원

1. 2014년 6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명, 건)

구분	근로자				사업자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8,185,898	5,514,116	1,490,927	82,465	1,380,822	92,408	124,387	46,629
생명보험	3,155,233	2,846,384	196,033	3,462	217,931	70,479	18,619	1,796
손해보험	1,121,094	1,023,589	61,506	260	58,908	1,937	19,704	228
증권	2,743,794	2,495,246	136,742	389	121,327	3,136	6,565	6,230
근로공단	126,269	-	123,786	403	31,103	-	30,894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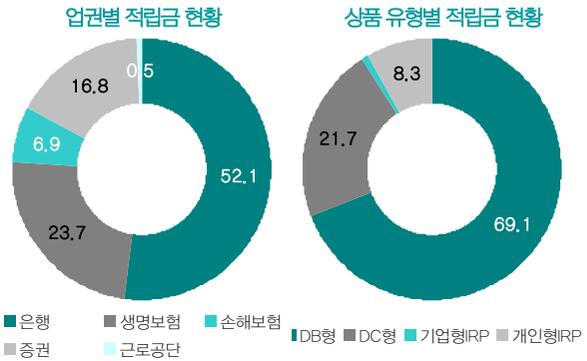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개소, %)

구분	합계	DB형 단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단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9	235,716	74,543	31.6	5,549	2.4	123,650	52.5	31,974	13.6
2013.12	254,138	80,107	31.5	6,812	2.7	131,741	51.8	35,478	14.0
2014.3	259,986	80,746	31.1	6,868	2.6	136,963	52.7	35,409	13.6
2014.6	262,373	80,906	30.8	6,886	2.6	142,450	54.3	32,131	12.2

3. 2014년 6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875,102	604,869	190,328	6,967	72,938
은행	456,052	274,248	126,038	6,703	49,064
생명보험	207,657	172,171	24,881	206	10,400
손해보험	60,624	51,605	6,817	14	2,188
증권	146,728	106,845	28,592	27	11,265
근로공단	4,040	-	4,000	18	21



4. 2014년 6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억원, %)

구분	DB형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안보예비금	예적금	291,795	48.2	118,466	62.3	6,099	87.5	42,728	58.5	459,088	52.5	
	금리확정형보험	223,779	37.0	20,554	10.8	149	2.1	8,512	11.7	252,994	28.9	
	금리연동형보험	18,971	3.1	5,687	3.0	62	0.9	2,742	3.8	27,462	3.1	
	국채	462	0.1	1,074	0.6	-	-	1,611	2.2	3,147	0.4	
	통안증권	-	-	-	-	-	-	-	-	-	-	
	기타정부보증채	-	-	-	-	-	-	-	-	-	-	
	원리금보장ELB	48,949	8.1	2,327	1.2	-	-	2,596	3.6	53,873	6.2	
	RP	9,684	1.6	2,502	1.3	2	0.0	1,450	2.0	13,639	1.6	
	발행 및 표지어음	-	-	158	0.1	-	-	50	0.1	208	0.0	
	기타	-	-	1	0.0	-	-	7	0.0	8	0.0	
원리보장금 소계	593,641	98.1	150,770	79.2	6,312	90.6	59,696	81.8	810,418	92.6		
실적배	실적배당형 보험	실적배당형 보험	162	0.0	1,520	0.8	12	0.2	362	0.5	2,055	0.2
		주식형	1,055	0.2	127	0.1	1	0.0	95	0.1	1,279	0.1
		혼합형	1,131	0.2	9,349	4.9	15	0.2	1,599	2.2	12,095	1.4
		채권형	4,312	0.7	25,570	13.4	593	8.5	4,149	5.7	34,624	4.0
		재간접	144	0.0	216	0.1	-	-	22	0.0	382	0.0
		부동산/실물/특별	111	0.0	-	-	-	-	-	-	111	0.0
		기타	1,028	0.2	-	-	-	-	-	-	1,028	0.1
		집합투자증권 소계	7,944	1.3	36,782	19.3	621	8.9	6,228	8.5	51,574	5.9
	직접투자	563	0.1	157	0.1	-	-	348	0.5	1,068	0.1	
	실적배당 소계	8,507	1.4	36,939	19.4	621	8.9	6,575	9.0	52,642	6.0	
대기성 자금	2,721	0.4	2,620	1.4	34	0.5	6,667	9.1	12,042	1.4		
총계	604,869	100.0	190,328	100.0	6,967	100.0	72,938	100.0	875,102	100.0		

5. 2014년 6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억원, %)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428,574	94.0	197,218	95.0	59,260	97.7	121,460	82.8	3,960	98.0
실적배당형	20,463	4.5	9,599	4.6	1,225	2.0	21,320	14.5	35	0.9
기타	7,015	1.5	840	0.4	193	0.3	3,949	2.7	45	1.1
합계	456,052	100.0	207,657	100.0	60,624	100.0	146,729	100.0	4,040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www.hanaif.re.kr

